

삼성, 일본과 사파이어웨이퍼 합작

삼성LED, Sumitomo와 합작기업 설립 ... LED 소재 수직계열화 박차

삼성LED가 일본기업과 합작으로 LED(Light Emitting Diode) 소재인 사파이어 잉곳 및 웨이퍼 생산에 나선다.

삼성LED는 일본 Sumitomo Chemical과 50대50 합작으로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합작기업 설립계약을 체결했다고 3월28일 밝혔다.

초기 자본금 800억원을 투입해 사파이어 잉곳에서 사파이어 웨이퍼까지 일괄 생산하며, 2011년까지 신규공장을 설립해 2012년 초 양산에 들어간다.

화학소재 전문기업인 Sumitomo Chemical은 2010년 초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을 통해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삼성LED는 핵심소재의 수직계열화를 구축함에 따라 LED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대체 효과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LED 수요는 급격히 늘었으나 핵심소재인 사파이어 웨이퍼는 원자재인 잉곳 수급이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세계 사파이어 잉곳은 수요의 90%를 5사가 과점하고 있다.

잉곳 공급부족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사파이어 웨이퍼의 안정적 수급은 LED 사업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삼성LED는 사파이어 잉곳에서 LED 소자, LED조명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Sumitomo Chemical은 유망 성장분야인 LED 관련소재 사업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디스플레이뱅크는 사파이어 웨이퍼의 세계시장 규모가 2010년 5억5490만달러에서 2011년 9억2680만달러, 2012년 13억4070만달러, 2013년 14억3760만달러, 2014년 15억440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28>